

독서회 <역사는 스스로 길을 찾는다>

마박

로봉이들이 껄주에게서 배워야 할 점은 무엇보다 변증법적인 태도일 것이다. <사회 개량이나 혁명이나>에서 논했던 개량과 혁명의 변증법적 인식은 우리를 고무하게 하기에 충분하다.

‘합법적 제도와 장치라는 것은 모두 혁명의 산물이며 혁명은 계급의 역사에서 정치적 창조 행위인 데 반해, 개량을 위한 노력은 지나간 혁명에 의해 창조된 사회형태의 구조에서만 일어나는 것이다.’

그렇기에 “개량을 단지 장기적으로 조금씩 달성해 가는 혁명으로 생각하고 혁명을 단기적으로 농축된 개량으로 보는 것은 근본적 오류”인 셈이다. 결국 개량과 혁명은 전혀 다른 목표로 나아간다. 그러나 룩셈부르크는 결코 개량을 부정하지 않았다. 그것이 변증법적 사고의 탁월함이다. 껄주는 개량과 혁명에 대한 이분법적 사고를 부정하며 개량과 혁명은 뉘페식처럼 고를 수 없는 것이라고 일갈한다.

‘개량이란 프롤레타리아가 임금노예 상태에서 벗어나려면 스스로 정치권력을 장악해야 한다는 역사적 사실을 생활공간에서 깨우치게 하는 것이다.’ 따라서, 개량은 혁명의 학교이다. 개혁에 목맨다고 해서, 개량을 부정한다고 해서, 혁명의 때가 혹은 사회주의 사회가 선물처럼 찾아오는 것은 아니다. 당장 내 앞에 놓인 현실을 직시하고 이를 사회주의적 의식과 결합하여 치열하게 성찰하고 실천하는 것, 그것이 사회주의자로서 마땅한 변증법적 태도라는 것이다.

“우리를 맑스주의로 인도하는 것은 맑스도 아니고 혁명도 아닌 우리 앞에 놓인 생생한 현실일 뿐이다.”

단순히 맑스를 달달 외운다고 해서, 레닌을 달달 읊는다고 해서 그것이 혁명적인 것이 아니다. 현실은 정제되는 법이 없으므로 사회주의자들의 사유도 정제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여기서 잠깐 변증법하면 빠질 수 없는 레닌의 <무엇을 할 것인가>를 떠올려본다.

"(혁명적 사회주의자란) 전횡과 억압—그것이 어디에서 발생하건, 어떤 계급, 계층에 관계된 것이건 상관없이—이 드러나는 온갖 현상에 대응할 능력이 있는, 그리고 이 모든 현상들을 경찰의 폭력과 자본주의적 착취라는 하나의 그림으로 종합할 능력이 있는, 모든 사람들 앞에서 사회주의적 신념과 민주적 요구를 표명하고 모든 사람들에게 프롤레타리아 해방 투쟁의 전세계적, 역사적 의의를 설명하기 위해서 그 어떤 사소한 사건이라도 활용할 능력이 있는 그러한 인민의 호민관이어야 한다."

사실 껄주의 날카로운 의식이 빛을 발한 일례가 소비에트 혁명이다. 그 또한 당대의 다른 사회주의자들과 마찬가지로 소비에트 혁명을 칭송한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그는 소비에트 체제에 대한 비판적인 의식은 거두지 않았다. 성과는 성과라지만 현실을 냉철하게 직시한 것이다. 룩셈부르크는 중앙집중주의를 고수하게 되면 “노동자운동을 관료적 족쇄보다 더 긴박시키는 것. 족쇄는 노동자운동을 정지시키고 운동을 중앙위원회의 꼭두각시로 변질시킬 것.”이라고 비판한 바 있고, 실제로 소련의 경직성과 관료화는 악질적 병폐로 자리 잡았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당대의 소비에트 체제가 틀렸다고 볼 수는 없을 것이다. 레닌이 중앙집중주의만을 고수했던 것은 본인이 일사분란한 조직에 대한 페티쉬나 독재욕이 있어서가 아니라 짜르 체제의 폭압을 피하기 위해서는 강력한 규율과 보안 유지가 최선이었기 때문이다. 혁명 이후에도 제국주의자들의 책동과 백색테러로부터 노동자 권력을 수호하기 위해서는 노동의 규율화와 군사화가 있을 수밖에 없었다.

룩셈부르크도 이를 인정하지 않았던 것은 아니다. 그는 낭만적인 사람이 결코 아니었다. 노동자 대중의 창발성을 깊이 신뢰하였지만 그것이 전부라고 생각하지는 않았다. 그리하여 룩셈부르크의 대안은 ‘자유집중주의’였다. 이는 1. 정치투쟁에 다수의 프롤레타리아가 존재하며 2. 노동자 계급의 정치 활동이 완전하게 보장되는 것을 전제로 하는 형태였다.

룩셈부르크의 P.T 독재는 비타협적 민주주의를 기반으로 한다. 그는 모든 사회제도의 선천적 결함을 치료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대중의 활기차고 자유로운 정치 활동으로 보았다. 완전한 언론 출판 결사의 자유와 선출된 대의 기구가 존재해야 한다. 물론 그러기 위해서는 대중의 정치적 훈련과 교육은 사활이 걸린 문제라고 생각했다.

아마 로봉이들이 그리는 이상적 PT 독재, 사회주의 사회의 그림과 일치할 것이다.

결국 현실 사회주의 국가들, 특히 소련은 해체되고 실패했으므로 껄주가 맞았고 레닌이 틀렸다고 해야할까? 물론 껄주의 중앙집중주의 비판과 전망이 일정 부분 현실로 드러난 것도 사실이다. 하지만 그것은 전혀 변증법적 사고가 아니다.

개인적으로는, 우익들의 악의적 왜곡과 파상공세에 맞서 소련의 역사적 의의를 지켜내는 것에 의미가 없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그러나 결국 우리가 견져내야 할 것은 소련의 복고가 아니라 레닌이나 껄주처럼 혁명적으로, 치열하게 현실을 움켜쥐었던 이들의 사상, 그리고 현실 사회주의 국가의 현실과 이상, 한계와 작금의 우리의 현실을 변증법적으로 사유하고 분석하는 과정에서 도출되는 교훈일 것이다.

룩셈부르크는 스파르타쿠스단의 봉기가 가까워지자 이렇게 말했다.

“혁명이 가진 특수한 생명 법칙이 있다면, 그것은 거듭되는 패배를 통해서만이 최후의 승리를 얻을 수 있는 것이다.”

우리가 자유주의적 이분법에 굴복하지 않는 이상, 변증법적 태도를 잊지 않는 이상

자본주의는 _지금 이 순간에도 암시하고있지만_ 그 스스로 더 이상 존속하지 못할 것임을 드러낼 것이다.

그 현실을 낚아채고 인류가 야만으로 향하는 길을 기어이 막아서는 것, 그것은 오직 사회주의자들의 의무다.